

보도시점 2026. 4. 6.(월) 16:00 배포 2026. 4. 6.(월) 09:00

‘AI 행동계획’ 이행 점검 등 지역 AX 현장 행보 본격화

- 임문영 부위원장, ‘지역특위’ 출범 후 첫 활동... 대구, 울산 방문
- 대구 수성알파시티 찾아 ‘AX R&D 허브’ 논의 및 로봇 기업 간담회
-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장 방문, AI 고속도로 기반 인프라 조성 확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 임문영 상근부위원장과 지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월 6일(월), 대구와 울산을 현장 방문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AX 산업 추진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인 ‘5극 3특 기반 AX 혁신벨트 구축’에 따른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권역별 AX혁신거점 조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기존 ‘지역TF’를 ‘지역특별위원회’로 격상한 이후 첫 일정이다.

■ [대구] ‘AX R&D 허브’ 조성 및 로봇산업 중심 AX 가속화

우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하여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역 주도의 AX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510억 원(안)을 투입하여 대구를 AI-로봇-반도체 융합 기반의 글로벌 AX 연구개발 및 산업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입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HD현대로보틱스, 에스엘(주) 등 10여 개 지역 기업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 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과 성과 불확실성, GPU 등 컴퓨팅 자원 부족, 데이터 활용 제약과 인재 부족 등으로 지역에서 AX 도입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X 확산의 핵심 장애요인은 기술이 아닌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도입 리스크가 크다”라며, “실증 단계부터 비용과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DGIST 등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AX 전문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을 방문해 로봇 테스트필드 및 첨단로봇실증지원센터를 점검하고 실·가상 실증 환경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가 기업들은 안전 규제와 인증 부담으로 실증이 실제 생산 라인 적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상황을 피력했으며, 위원회는 실증-사업화 연계 강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제조 AX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 ‘AI 고속도로’ 핵심 인프라, SK AI 데이터센터 구축 점검

오후에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SK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장을 방문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및 전력 수급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협력해 약 7조 원 규모로 구축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약 6만 장 규모의 GPU 수용이 가능한 초대형 연산 인프라와 고효율 냉각 시스템 등을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따른 전력 공급, 인허가, 계통 연계 등 에너지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에너지 특화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확보와 계통 연계 과정에서 제도적 부담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I 경쟁력은 결국 연산 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달려 있다”며, 전력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고속도로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지역 현장 행보에서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I 경쟁력은 결국 연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라는 ‘엔진’과, 기업과 연구자가 마음껏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운동장’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구와 울산이 각각 글로벌 AX 연구 개발 허브와 첨단 컴퓨팅 인프라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 경쟁력이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핵심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남권 정책 현장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며, 2일차에는 창원을 찾아 ‘피지컬 AI’ 기반 제조 AX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프라지원팀	책임자	팀 장	민자영 (02-2224-4181)
		담당자	사무관	김경배 (02-2224-4183)
			사무관	김중훈 (02-2224-418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